



# “최신식 무창돈사 시설로 친환경 축사모델의 전형 제시하는 우정종돈”

“PRRS 음성돈군 조성으로 PRRS 청정화의 기초 다질 것”  
 (주)유로하우징의 완벽한 무창돈사 시설 기술력 또 다시 발휘

▲ 우정종돈(대표 심봉구)은 10월 김제에 신축한 최신식 시설의 GGP농장에 캐나다 제너수스사의 원종돈 300두를 입식, PRRS 음성 종돈장의 기초를 다질 것을 선언했다.

글·사진 - 오유환

(주)우정종돈(대표 심봉구)은 지난 10월 16일 이 건식 김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정종돈 김제 GGP농장 준공식을 개최하고 하루동안 농장을 개방해 양돈농가 및 업계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 PRRS 음성돈군으로 종돈 경쟁력 강화

이번에 준공한 김제 GGP 농장(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1042번지)은 모돈 300두 일괄사육 농장으로 PRRS 음성돈군을 조성하여 소모성질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무

창돈사 설비를 통한 생산효율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심봉구 대표는 이를 위해 우정종돈의 첫 번째 특징을 PRRS 음성돈군 형성이라고 설명한다.

(주)우정종돈은 이번 GGP 농장 신축에 맞춰 캐나다 제너수스 요크셔 250두, 듀록 모돈 50두 등 총 300두의 PRRS 음성돈군을 도입해 PRRS 청정화의 기초를 다졌다.

심 대표는 “한·미 FTA와 수입육의 거센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선결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PRRS 음



◀ 우정종돈은 지난 10월 16일 양돈농가와 양돈 관계자들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최신식 무창돈사 시설인 우정종돈 김제 GGP 농장 준공식과 농장개방 행사를 개최했다.

성돈군 확보와 환경과 조화로운 축사시설을 통해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2월부터 종돈장에 대한 돼지생식기 호흡기증후군(PRRS) 검사가 시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PRRS 음성돈군의 가치는 더욱 중요할 것이라며, PRRS 음성종돈장의 기초다지기에 총력을 기울 것”이라며, 이를 위해 외부인과 외부차량에 대한 차단방역을 최선의 과제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 환경과 조화를 강조한 친환경 축사모델

우정종돈의 두 번째 특징은 친환경 축사모델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제 GGP농장은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농림부 친환경축사사업 설치 지원비를 지원받아 건설된 농장.

주변환경과 자연스럽게 조화된 농장의 외경뿐

만 아니라 농장의 내부시설 또한 최신식 무창돈사 환기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돈사시설 전문 시공업체인 (주)유로하우징이 시공한 농장은 부지면적은 3,022㎡, 건축면적 3,692.5㎡으로 임신사 1동, 분만사 1동, 자돈사 1동, 검정사 1동 등 총 4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000두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로 이뤄져 있다.

농장의 관리인력은 심봉구 대표를 비롯한 총 3명의 직원만으로 농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장작업 공정을 단순화시키고 자동화시켰다.



▲ 완벽한 단열시공과 함께 첨단 보온등 컨트롤러를 사용해 섬세한 난방, 온도조절이 가능하다.



◀ 계절별 3단계 입기용 멀티박스를 조작하는 모습. 한번에 돈방에 설치된 4개의 입기구를 조절할 수 있다.

환기는 3단계 멀티박스 입기를 통한 공기주입으로 겨울철과 환절기에는 1단계로 적용되고, 봄/가을철에는 2단계, 한여름에는 3단계로 작동하도록 설계, 시공되었는데 모든 시스템은 기온과 습도에 따라 전자동으로 제어되어 적절한 환기가 이뤄진다.

▶ 울 언더슬랏 피트배기 시공으로 인해 환절기 및 겨울철 최적 환기 제공하는데, 피트배기방식의 환기시스템은 열전도를 감소시키고, 돈사내 이산화탄소(CO<sub>2</sub>) 배출을 활발하게 한다.  
사진은 자돈사 내부전경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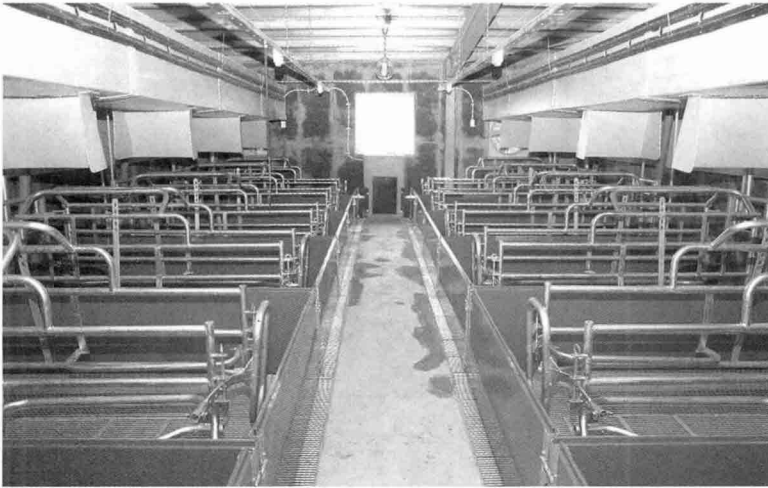
#### 4계절 문제없는 완벽한 환기시스템 구축

우정중돈 GGP 농장의 무창돈사 시스템은 울 언더슬랏 피트배기 시공을 통해 슬러리 바닥에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해 바닥의 오염공기가 돼지에 접근할 수 없도록 개발한 환기시스템을 적용했다.

환기는 3단계 멀티박스 입기를 통한 공기주입으로 겨울철과 환절기에는 1단계로 적용되고, 봄/가을철에는 2단계, 한여름에는 3단계로 작동하도

록 설계, 시공되었는데 모든 시스템은 기온과 습도에 따라 전자동으로 제어되어 적절한 환기가 이뤄진다. 특히 외부의 갑작스러운 공기 주입으로 인한 온도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고안 설계되어 기온차가 급변하는 우리나라의 4계절에 적합하다. 또한 작업자가 최소한의 작업으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입배기 조절 역시 간편하다.

울 언더슬랏 피트배기 시공으로 인해 환절기 및



◀ 돈방 온도별 4단계 배기 시스템으로 계절에 따른 적절한 최적의 환기를 할 수 있다.  
사진은 스톨사 내부전경 모습

겨울철 최적 환기 제공하는데, 피트배기방식의 환기시스템은 열전도를 감소시키고, 돈사내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활발하게 해 돈사의 폭이 넓거나 큰 경우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슬러리 바닥의 안무 현상이 없어 시각 정체현상 해소에도 큰 효과가 있다.

또한 모든 벽체는 조적 및 옹벽시공이 되어 부식방지는 물론 반영구적인 수명을 유지할 수 있으며, 현장 용접 없이 완벽한 조립식 시공을 실현했다.

### 유로하우징 - 완벽한 4계절 대비 환기 시스템 기술력 선보여

이번 건설된 우정종돈 GGP 농장은 돈사시설 전문시공업체(주) 유로하우징(대표 신일식)의 기술력의 개기를 다시 한번 증명한 사례로 미래형 최신키 무창돈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우정종돈 GGP 농장의 시공을 맡은 (주)유로하우징은 앞선 기술력과 완벽한 시공능력으로 인정받는 국내 돈사시설의 선두업체.

신일식 (주) 유로하우징 대표이사는 “이번 무창



▲ 우정종돈 심봉구 대표는 “한미 FTA와 수입육의 거센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선결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PRRS 음성돈군 확보와 환경과 조화로운 축사시설을 통해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돈사의 시설은 기존의 시설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한국형 돈사시스템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돈사시설의 토탈시스템 구축을 통해 양돈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TA 개방화 시대에 국내 양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돈사로 업그레이드되는 한국 양돈 산업을 기대한다. **양돈**